

“기후문제 해결해야 코로나 극복”

김승환 교육감 확대간부회의서 ‘지구살리기 실천’ 재차 강조

김승환 교육감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20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계속해서 기후 문제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별기에 브뤼셀에서 EU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그들의 목적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패키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들이 확실하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바로 기후 문제”라면서 “유럽 정상

들은 기후 문제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으면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리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지구를 회복하는 일에 적극적, 실천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전북교육청민간비도 그동안 삶의 기준에 비춰보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전기사용, 형광등 사용부터 줄여나가는 일을 철저히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이 도교육청을 넘어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단위학교

로까지 확산돼 나갈 수 있게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스쿨 프로젝트와 관련된 우려를 나타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5년간 18조 5000억원 규모를 투입, 노후학교를 친환경, 정보통신기술(CT) 친화 교육환경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김 교육감은 “온라인수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온라인수업이 초래하는 교육격차 심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코로나 위기 시대에 대비한다면 어떻게 하면 대규모 학교가 더이상 생가지 않고, 대규모 학교를 소규모 학교로 나누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일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온라인 시대에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은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유튜브 세상 바로보기’

도교육청, 전북교육 아카데미 크리에이터 최케빈 강사 초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7월 20일 삼산(深山)초대 전북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오후 7시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크리에이터 최케빈이 진로탐색 분야 강사로 나서 유튜브 세상 바로보기, 요즘 아이들은 말이야를 주제로 전북교육공동체와 만난다.

디지털 언어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1인 미디어 세상의 중심인 크리에이터는 매력적인 미래직업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유튜브는 지난해 초등학교 장래 희망직업 3위에 꼽힐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는 직업이다.

최케빈은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한 상황극 등 종합 게임 채널을 운영하며 48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다.

자녀를 직접 키우는 유튜브 최케빈과 함께 ‘유튜브 세상 바로보기’와

‘요즘 아이들 이해하기’에 대해 듣는다. 이어 8월에는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기후 위기로부터 대전환)이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9월 박민규 교수(실용언어) △10월 김신하 박사(야생주의자) △11월 흥기빈 소장(새로운 시대의 경제학) △12월 허진모 작가(지식과 생각의 역사)의 강의가 준비돼 있다.

전북교육아카데미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도교육청 학부모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http://parents.jbc.go.kr)를 통해 교육신청을 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진로탐색, 인문과학, 사회경제, 기후환경, 역사문화 등 다양한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도민들이 전북교육의 기본 방향을 이해하도록 돕고, 민주시민 공동체 의식과 자치역량을 높이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공유와 공감을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과 소통하는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대학일자리센터 지역청년 화상 취업 컨설팅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최근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전문대학 데이터기반 교육성과 분석 포럼을 개최했다

전주대 대학일자리센터(센터장 홍성덕)는 20일 지역청년 대상 화상 취업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화상 취업컨설팅 서비스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면 상담이 어려워진 가운데 구직활동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 플랫폼을 활용해 입사지원서와 면접 등 채용 관련 사항을 1:1로 컨설팅해주는 방식이다. 이번 화상 컨설팅에는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3학년 학생 19명이 한국전력공사 채용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받았다.

참여자들은 “입사 지원 과정에서 막연한 걱정이 많았는데 전주대학교 컨설턴트의 세심한 조언을 받아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홍성덕 센터장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청년 구직자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진로·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고도화·발전된 성과관리 체계 만들어야”

전주비전대, 전문대학 데이터기반 교육성과 분석 포럼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최근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전문대학 데이터기반 교육성과 분석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전문대학에 적합한 데이터기반 교육성과 분석 모형에 대해 고민하고 대학의 교육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관리 확산을 위해 마련한 자리로, 홍순직 총장을 비롯해 정성훈 교수(대학혁신본부장), 김나립 교수(학사지원처장), 최승훈 교수(산학협력단장), 문용규 교수(대학성과관리센터장), 이원휘 교수(교육과정혁신센터장), 김수현 교수(대학성과관리센터 부센터장), 임환빈 교수, 남기민 교수(강원도립대학) 명보화 교수(경인여자대학), 윤우영 교수, 김유석 교수(계명문화대학), 윤태복 교수(서일대학), 박정근 교수(수원여자대학), 김태욱 교수, 변성원 교수(안산대학), 하승한 교수(충북보건과학대학)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4차산업혁명 미래 사회에 대비해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질 관리 및 교육 운영 성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 성과 분석을 위한 교육 데이터 시각화, 교육 데이터 마이닝(Educational Data Mining: EDM) 등의 연구를 시작하고자 8개 전문대학이 개최한 포럼이다.

윤우영 계명문화대학 교수는 “대학

에서는 학내에서 수집된 교육데이터를 활용해 교육운영에 적용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4차산업혁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중심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의 성과관리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보다 고도화되고 발전된 성과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윤태복 서일대학 교수는 “이번 포럼이 자발적인 모임으로 시작한 만큼 포럼 결과의 성과와 실제 여부에 상관없이 전문대학의 교육성과 모델을 찾는 시도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면서 “대학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미 없는 포럼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전주비전대학 교수는 “전문대학 교육관련 데이터 분석은 현재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효율성 분석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으므로 대학의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순직 총장은 “이번 포럼의 목적과 취지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일회성의 모임이 아닌 지속적인 모임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며 “전주비전대학에서 첫 번째 포럼을 시작했으며 만큼 대학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8개 대학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7월 현장맞춤형 학부모교육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하영민)은 최근 풍남유치원 강당에서 30여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맞춤형 학부모교육’- ‘자녀와 소통하는 성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7월 학부모교육은 필수과정과 선택 과정을 나눠 필수과정은 기후환경,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선택과정은 성교육 등 2개 과정을 신청한 9개 학교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전문 강사를 지원해 해당 학교에서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자녀와 소통하는 성교육’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바른 자녀를 키우기

위한 보호자의 역할, 또래의 특성과 올바른 관계 맺기 등 성교육 지도 요령에 대한 강의를 듣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야기하는 성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하면서 강의에 민중을 표했다.

하영민 교육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으로 바람직한 학부모상 정립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2020 신규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개강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추진하는 2020년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 협력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점 교육기관 유치 첫 번째 사업으로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 교육 과정을 7월 22일부터 11월 말까지 기본과정, 전문과정, 강의력향상과정(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위촉평가과정(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으로 진행하며, 위촉평가과정을 통과한 강사는 지역여성의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사로 등재돼 전문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 교육은 기본과정(22시간), 전문과정 I, II(28시간), 강의력향상과정(22시간), 위촉평가과정(8시간)으로 구성돼 진행되며 참여자 모집을 통해 지난 15일 서류전형 심사를 진행했고 지역의 양성평등 교육, 정책개발 담당 등 관련업무 종사자 등 28명을 선발했다.

이에 분야별, 지역 사례에 적합한 양성평등교육 강사를 발굴·양성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양성평등·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